

정보활용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수용 양태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College Students

최 상 희(Sanghee Choi)*

박 명 규(Myung-Kyu Park)**

목 차

- | | |
|-------------------------------------|--------------------------|
| 1. 서 론 | 3. 2 정보 요구 인지 / 표현 단계 분석 |
| 2. 선행 연구 | 3. 3 탐색 전략 수립 단계 분석 |
| 3. 정보활용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수용양태 분석 조사 | 3. 4 탐색 수행 단계 분석 |
| 3. 1 연구범위 및 방법 | 3. 5 정보접근 과정 평가 |
| | 4. 결 론 |

초 록

정보사회의 기본개념과 정보활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정보 접근력 함양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양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질적분석을 통해 주요 응답 내용을 파악하여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 교과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college education. For this purpose, assignments and surveys were distributed to the students in a 3 credit course that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ssignments and surveys were about iden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needed and access to the needed information, since that is the first step for the information seeking process. The results were analysed by qualitative methods.

키워드: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능력, 대학생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College Students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udultudul@yonsei.ac.kr)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parkmk@yonsei.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9월 14일

1. 서론

정보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정보의 유용성이 소멸되는 속도 또한 그만큼 빠른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문분야,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대학 재학 중에 습득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선별하고, 정리, 분석,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창적이고 유용한 새로운 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평생 동안 독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활용교육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은 특정한 정보자료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에서 개발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활용능력기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효과적,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와 정보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 혹은 가치체계에 통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이용에 관련된 경제적, 법

적,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윤리적,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여야 한다(ALA 2000).

정보활용교육은 서지교육, 컴퓨터활용교육 등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중복되는 개념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정보활용교육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명규(2004)는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요소를 접근력, 선별력, 통합력, 표현력, 감상력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윤리적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창조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인 정보 창작물을 심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정보 접근력은 정보활용능력의 핵심 능력에 해당한다.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정보활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정보에 접근해서 찾아내야만 선별을 하거나, 통합하고 표현하며 더 나아가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정보활용능력의 기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중 특히 정보 접근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해당교육내용을 어떻게 수용하고 현재 정보활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수업은 4년제 대학에서 전 계열의 학생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으로, 이 수업에서는 수업과 과제를 통해 정보 접근력 범주의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대상이 된 기간은 2005년 여

름학기로 총 11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정보활용에 관련된 과제가 4회, 설문지가 1회 배포되었으며 각 과제에는 정보활용에 관련된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정보활용과제를 모두 끝내고 정보활용 각 과정에 대하여 인식한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커트척도에 기반을 두어 설계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정보활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의 효용성과 문제점은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의 개발 방향 제시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Shapiro와 Hughes(1996)의 정보활용능력 개념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실질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의 본질, 기술적인 구조,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와 영향력 등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음 7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 도구 활용능력: 인쇄자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자료 이용 능력
- 자료 활용능력: 정보자료의 형태와 형식, 소재파악과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력
- 사회적 구조 이해능력: 정보 생산 방법, 사회구조 안에서 정보의 위치에 대한 이해력
- 연구조사 수행능력: 연구조사활동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도구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 출판능력: 연구조사활동의 결과물로서 텍

- 스트 또는 멀티미디어 보고서 생산 능력
- 신기술 활용능력: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최신 기술에 대해 이해, 적용, 평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
- 비판력: 정보기술의 사회적, 학문적 장점과 단점, 잠재력, 제한점, 비용과 이익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성공적인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여러 문헌에서 제시되어 왔다. Wilson(2001)은 학생중심의 협력수업을 강조하였고, Hichliffe와 Woodard(2001)은 교육과정 계획단계에서 교수설계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 목표와의 일치(Breivik, 1998; Dewald, 1999), 도서관과 교수진과의 파트너십 형성(Stoffle, 1998)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며, Jacobson과 Mark(2000)는 정보활용교육은 다른 교과목의 수업내용 및 과제들과 연계하여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는 정보 접근력에 있어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보활용능력을 함양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Oklahoma의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정보활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rown, Murphy, and Nanny 2003). Manual(2002)과 Seamans(2002)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학생들은 인터

넷에서 얻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학문적인 성취, 또는 여가 선용이나 창조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 탐색에만 의존하는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예측된다.

대학생들에게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교육과 정규과목으로서의 교육이 있다. 정규과목인 경우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조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rantz(2002)는 학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보활용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고안하였다. 예를 들면, 도서관 소장정보, 학술잡지 기사를 찾기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 독서목록에 포함된 단행본의 서평정보, 참고문헌목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연구조사활동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Orr, Appleton, 그리고 Wallin(2001)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도서관과 교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모형은 지리학, 관광학, 의학, 심리학 등의 학문분야 과목과 협동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 대학 정보활용교육의 개발, 전달, 평가의 기본을 확립하였고 정보활용교육의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학교육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강혜영(2002)이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ACRL)의 정보활용 기준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의 대학에서 개발한 정보활용 교육 모형들을 비교하였고, 진혜영과 황인영(2003)은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보활용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창수와 김신영(2003)은 정보활용능력이 대학 교육의 핵심 목표이자 도서관 교육의 새로운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사서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도서관 교육이 교과과정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대학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3. 정보활용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수용양태 분석 조사

3.1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의 기본개념과 정보활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정보 접근력 함양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양태를 분석하고, 이 과정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과제와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정보 접근력에 대한 이 수업의 강의 내용은 정보의 필요성 인지, 다양한 정보원 소개, 탐색 전략 수립 방법, 탐색도구 및 기본 탐색기법 소개, 정보원 평가 기준 소개 등이다. 이 과목에서 정보접근 과정을 평가하는 설문과 과제를 수행하였던 수강생들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공별 수강생 수

	공학 계열	법학 계열	사회 계열	상경 계열	생활과학 계열	신학 계열	인문 계열	의학 계열	자연 계열	체육 계열	총 수강인원
수강인원	50	4	8	14	4	1	10	7	9	3	110

데이터 수집은 수업 과정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단계이다.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은 연구 주제를 잡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탐색된 정보와 수행한 정보접근 과정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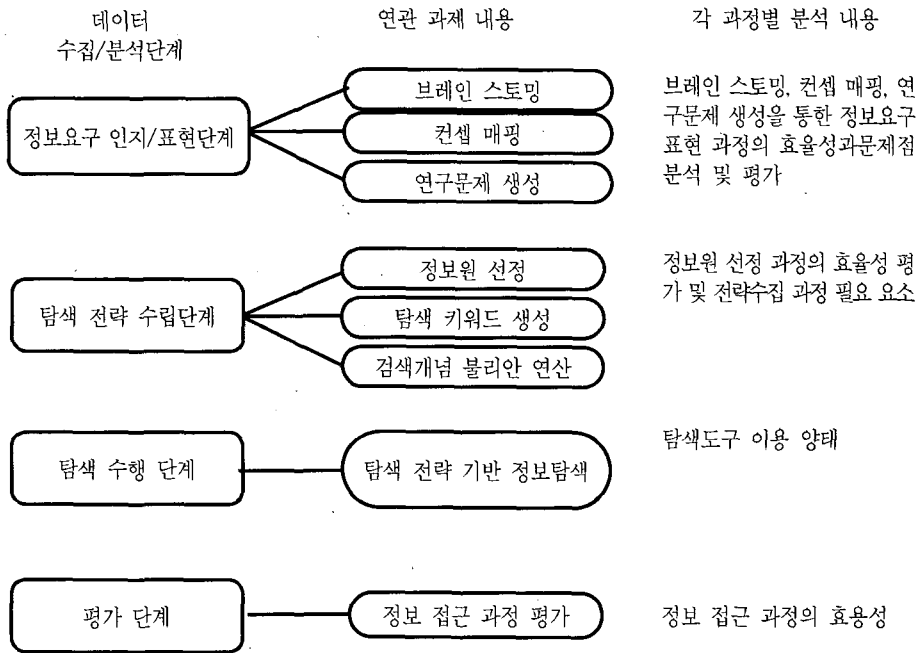
1-3단계에서는 관련 과제가 수강생들에게 배포되었고 각 과제를 수행한 후 과제 수행에 관련된 설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정보 접근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정보 접근 과정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진행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설문 응답 내용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주요 응답내용을 파악하였다. 개방형질문의 응답내용을 내용 분석한 결과 1)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역할, 2)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컨셉 매핑 역할, 4)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컨셉 매핑의 문제점, 5) 연구문제 생성을 위한 선행과정, 6) 정보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사항, 7) 정보탐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8) 정보탐색 전략 변경 사유, 9) 정보탐색 전략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분석되었다. 각 범주별 분석과 세부 설명은 다음 절들에서 다루었다.

3. 2 정보 요구 인지 / 표현 단계 분석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단계에서는 브레인 스토밍과 컨셉 매핑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요구를 표현하였다. 브레인 스토밍은 정보요구를 구체화할 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컨셉 매핑은 브레인 스토밍에서 산출된 개념, 아이디어들의 연관관계를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컨셉 매핑을 하는 목적은 일반적이며 복합적인 주제의 다양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특정하고 세부적인 주제나, 단일 주제로 체계적으로 좁혀나가기 위한 것이다. 즉, 막연한 정보요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요구로 표현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된 모든 개념을 생각한 후, 생각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관심 있고 필요한 영역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정보요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컨셉 매핑은 브레인 스토밍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와 개념간의 관계를 분석, 연결하면서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도로 나타날 수 있다. 주제의 상하위 관계 및 수평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연결되는 형태에 따라 주제 밀접도도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의 다각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를 원하는 측면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한다.

각 방법의 개념 및 과정에 대하여 수업시간에 설명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수업과 관련하여



〈그림 1〉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진행 과정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브레인 스토밍과 컨셉 매핑을 한 후 수행한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강생의 설문 응답률은 90% (100명/110명)이다.

응답자 중 브레인 스토밍이 정보 요구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81%에 해당한다. 브레인 스토밍과 컨셉 매핑이 정보 요구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면 <표 2>와 같이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브레인 스토밍의 역할이 총 8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브레인 스토밍은 막연한 정보요구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가 나타난다는 것이 주요 역할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제 재발견, 확대와

같이 주제와 관련된 영역을 지적하고 있어, 브레인 스토밍이 찾고자하는 정보 주제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사고가 제한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것이 질적, 양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으며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해내는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개인 정보요구 표현에 적용하다보니 아이디어가 개인 능력으로 제한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브레인 스토밍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하여 오히려 아이디어가 너무 산만하고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양태도 보였다.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

〈표 2〉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역할

브레인 스토밍 역할	응답내용	응답자 수
주제 다양성 인지	-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사고를 진척시킬 수 있어 보다 다양한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 특정범위의 제한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확산할 수 있었다.	45
주제 재발견	-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개념을 찾아낼 수 있었다.	27
주제 선별	- 아이디어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때 좋은 아이디어만을 골라낼 수 있다.	5
주제 확대	-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던 상황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다.	18
자유로운 형식	-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써내려가는 것이 깊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편견 없이 고려할 수 있어 좋았다.	51
방향제시	- 생각 흐름에 따라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장부에 연관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었다.	7
생각구체화	- 구체화시키지 못한 문제의식, 궁금증을 넘어쳐서 지면에 재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막연하고 어렵듯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생각들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9
시간단축	- 주제 선택과정에 드는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

〈표 3〉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의 문제점

문제점	응답내용	응답자 수	
참여인원으로 인한 제한	- 혼자서 브레인 스토밍을 하니 생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 같다. - 혼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그 주제에 대해서 편중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12	
배경지식 부족	- 특정 주제에 대해 사전에 고찰해 보지 못했거나 개념 정의가 되지 않았던 분야의 생각들을 꺼내어 놓는 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 주제에 관한 제한지식이 부족하여 제한된 부분의 아이디어만 적을 수밖에 없었다.	43	
정보 부족	-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무엇을 써야할지 고민하게 되고 자유롭게 적는 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15	
자유로운 사고 형식	아이디어 생성량	- 처음부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왔다.	3
	논리성 부족	- 자유롭게 생각한 아이디어의 논리성이 부족하다.	3
	방향상실	- 생각이 뻗어 나갈수록 처음의 큰 주제와는 관련이 없어지곤 했다.	12
	산만한 아이디어 생성	- 다양한 생각들이 너무 두서없이 튀어나와서 주제에 확실히 부합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다보니 여러 가지 개념이 산만하게 나와 오히려 주제 파악이 어려워졌다.	5
불필요한 사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랐다. - 기술한 내용 간에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8	
시간소비	- 관련 없는 아이디어를 쓰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점점하였다.	2	
연상 한계	- 연상을 하는 데 있어 막막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힘들었다.	7	
연상과정의 문제점	- 브레인 스토밍을 마쳐야 할 시점을 잡기가 어려웠다.	5	

롭게 사고를 하다 보니 방향을 상실하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내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4〉를 보면 자유롭게 연상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제시된 컨셉 매핑에 관련하여, 개념과 아이디어 관계를 정리하면서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인지가 되었고(추상적 개념

〈표 4〉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컨셉 매핑 역할

컨셉 매핑 역할	응답 내용	응답자 수
추상적 개념 구체화	-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연구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 추상적인 주제를 매핑을 통해 도시하고 생각 및 개념들을 작성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9
개념 관계 정리	- 연관되는 것들을 묶어둠으로서 추론이 가능하다. - 아이디어를 상하위로 분류할 수 있다.	24
새로운 개념/구조 발견	- 다른 분야와 연관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이미 적어놓은 개념을 자유롭게 연관해보는 과정에서 한 개념의 또 다른 연관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14
공통 개념 파악	- 공통적인 개념들을 따로 따로 묶을 수 있었다.	3
개념 정의	- 하위 개념들과 연관성을 따져보고 연결해보니 의미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3
불필요한 개념 삭제	- 쓸모없는 개념들을 빼버릴 수 있는 기회였다. -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특정 주제로 연구범위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1
주제 구체화	- 지식정보사회의 현상 중 관심 중 관심 있는 주제 분야라는 추상적 주제에서 최하위 개념까지 내려와 보니 구체적인 주제가 형성되어 있었다. - 큰 범위의 주제를 소주제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20
주제 연관성 파악	- 흥미있던 특정개념이 어느 개념들과 관련이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2
포괄적 주제 이해	- 브레인 스토밍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파악하는 게 매우 쉽다. -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개념들 간의 관계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16
주제 제한	- 특정 주제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었다.	5
방향성 제시	- 여러 갈래를 보면서 어느 것이 주제로 좋은 가를 보다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 내가 연구해야 할 연구문제를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7

구체화 응답비율 29%), 주제 분야 자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응답하여(주제 구체화 응답비율 20%), 개념과 주제 구체화가 정보요구 인지를 위한 컨셉 매핑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정리된 주제 개념도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결된 관계를 조명하면서 불필요한 개념을 파악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개념을 다시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또한 브레인 스토밍 결과로 자유롭게 나타난 개념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제를 인지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반면 〈표 5〉를 보면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컨셉 매핑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대부분 개념 정리에 관련된 것으로 복합 주제를 나타내는 개념이나 중의적 개념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정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브레인 스토밍에서 자유롭게 생각한 개념들을 체계적인 구조로 정리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유사 개념을 한 집단으로 묶고 연관 개념을 선으로 연결하는 등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선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연결하는 방식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을 위한 컨셉 매핑의 문제점

컨셉 매핑 문제점	응답내용	응답자 수
개념관계 설정이 어려움	- 상하위관계가 정확한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 컨셉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보니 하위 컨셉의 위치 배열이 상당히 어려웠다. - 너무 많은 관계들이 나타나 정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45
매핑 기준 설정이 어려움	- 개념들을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잣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정보가 너무 임의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특정한 기준을 잡기 어려웠다.	11
복합 개념 정리가 어려움	- 여러 개념에서 파행된 개념간의 관계들을 따져보는 것이 어려웠다. - 여러 부분에 중복되는 사항이나 개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20
다양한 개념 정리가 어려움	- 다양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찾아서 매핑하는게 의외로 까다로웠다.	5
불필요한 개념 정리가 어려움	- 개념 간에 연결 되지 않아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4
관계 구조를 체계화하기 어려움	-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선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서로 얽히는 일이 많았다. - 관계를 묶는 연관성도 다양한 방법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만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묶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웠다.	16
한정된 범위로 제한됨	- 주제 자체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 사고가 편협해지고 딱딱해지는 느낌이었다.	2

연구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생의 경우, 연구문제를 설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보요구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문제 생성을 위한 선행과정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브레인 스토밍과 컨셉 매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념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38%)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행과정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 조사, 배경지식 습득, 정보 수집 과정은, 브레인 스토밍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사항인 배경지식 부족, 정보부족과 연결된다. 이는 브레인 스토밍과 컨셉 매핑만을 통한 연구 문제 생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표 6).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선행 과정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즉, 실제 정보요구를 가지고 정보탐색을 하

기 전단계로서 정보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기초 정보 탐색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경정보나 기초정보를 탐색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의 타당성과 필요 정보의 수집 가능성을 파악하고 주요 개념의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보요구를 인지, 표현하는 과정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접근을 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할 때까지 외부 정보를 참조하며 정보요구를 세련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석되었다.

3. 3 탐색 전략 수립 단계 분석

탐색 전략 수립단계에서는 필요한 정보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탐색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제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수

〈표 6〉 연구문제 생성을 위한 선행과정

선행과정	응답내용	응답지수
개념정리	-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컨셉 매핑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알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6
선행연구 조사	- 관련된 주제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주제에 대해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22
배경지식 습득	- 연구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두어야 한다. -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 - 관련된 광범위하고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정보원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25
정보수집	- 이용가능한 정보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자료 수집 면에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수집이 편리한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16
연구목적	- 연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3
연구범위	- 연구 발표 대상자,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타당성	- 연구방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2

행하는 동안 직면했던 문제점과 인지한 탐색 전략의 필요성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응답률 85%: 93명/110명).

탐색 전략 수립 과정의 주요 과제로 정보원을 미리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 예상외로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응답률 41%). 〈표 7〉을 보면 그 이유가 인터넷에서 대부분 필요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으므로 굳이 여러 정보원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즉, 종합적인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내용의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였을 때는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인식한 경우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채널로 인식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도서관을 찾거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논문을 찾는 것도 인터넷 정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가면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정보원을 유형별로 인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경향을 문제점으로 인식한 경우도 전체 응답자 수 중 31명에 해당한다. 인터넷 외의 정보원이 생각나지 않아 다양한 정보원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이외의 다른 정보원 이용 경험 부족으로 정보원 선정에 제한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응답내용은 인터넷 중심으로 정보원을 인지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만으로도 정보원 선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과 연관되는 결과로서, 인터넷 정보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쪽과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양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국은 모두 인터넷 정보원을 거의 단일 정보원으로 주로 이용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실제 탐색에서 적용한 탐색도구 및 정보원 이용 현황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탐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는 정보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표 8 참조), 이는 인터넷으로 정보원이 충

〈표 7〉 정보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사항

문제사항	응답내용	응답자수
인터넷 위주 정보원 선정: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 인터넷 정보원 이외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 인터넷 외의 정보원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 다양한 정보원을 생각할 수 없다. - 신문기사, 도서, 학위논문, 사전, 백과사전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원이 인터넷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31
인터넷 위주 정보원 선정: 문제점이 없고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 문제점이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만으로 상당부분이 해결된다. - 문제점 없다. 거의 모든 외부 자료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도 했다. - 요즘 인터넷 정보 및 검색기술이 눈부실 정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 및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거의 무한대로 찾을 수 있기에 별 어려움은 없다.	37
정보원 평가 기준	- 정보원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의 잣대가 없었다.	8
정보원 범위	- 정보원들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5
정보원 연결	- 연구문제로 정한 주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원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3
정보원 지식 부족	- 알고 있는 정보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원내에서만 선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3
주제 이해 부족	- 생소한 주제였기 때문에 정보원을 찾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 생소한 정보일수록 관련 정보원내지 키워드 선정이 어렵다.	9

〈표 8〉 정보탐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문제사항	응답내용	응답자수
주제배경지식	-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연구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개념 또는 키워드	21
검색시스템 이해	- 특정한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그 나름의 정보검색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9
탐색 기술 이해	- 키워드 서칭, 구 검색과 관련된 검색 팁 - 복잡한 검색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연산자를 미리 숙지한다. - 인터넷 검색 능력 숙련도가 가장 필요하다.	20
정보원 이해	- 특정 정보원의 성향이라든가 그 방면에서 제공되는 논문의 성격 - 어떤 정보가 어떠한 정보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32
검색 범위 조절	-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범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보원 평가	-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

족된다는 비율도 높았지만 인터넷만으로 정보원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으로 정보원이 제한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특정 정보원의 성향을 미리 알거나 어떤 정보가 어떤 정보원에 주로 많은지를 아는 등 정보원에 대한 선행지

식이 있어야 정보원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중요한 지식과 기술로 응답한 것은 연구 주제에 대한 주제 배경지식으로서 이런 지식들이 정보탐색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으며 정보 탐색 경험과 탐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4 탐색 수행 단계 분석

정보 탐색 수행 단계에서는 정보탐색 전략과 정에서 선정한 키워드로 실제 탐색을 수행해보고 그 과정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전체 응답률은 81%(89명/110명)이다.

〈표 9〉를 보면 응답자 중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한 경우가 전체 89명 중 2명을 제외한 87명으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탐색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응답자가 많이 이용한 정보원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체 응답자의 64%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도서관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도서관으로 가서 서가를 훑어본 경우도 26명에 해당한다.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를 하면 디지털 도서관에서 탐색을 한 숫자의 50%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가를 훑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에 이용한 총 횟수를 비교하여도 인터넷 검색엔진 이용 횟수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디지털도서관보다 약 2.5배에 가깝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보 탐색시 인터넷 검색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용자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정보탐색을 수행했을 때는 평균 8.94번의 탐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검색엔진은 평균 4.24번, 디지털도서관은 평균 1.89번, 도서관 서가 브라우징은 0.73번, 개인소장자료 브라우징은 0.32번, 특정 웹사이트 탐색은 0.71번, 웹 신문 탐색은 0.60번, 인터넷 백과사전 및 사전 탐색은 0.43번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웹 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이나 이슈를 알아보는 측면 외에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원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탐색을 수행하던 중에 정보탐색 전략을 변경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74%에 해당하였는데, 탐색 전략을 변경한 사유는 〈표 10〉에서 설명되었듯이 대부분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두었던 키워드를 가지고 탐색을 하다가 다른 키워드로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다른 키워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20건에 해당하였다. 또한 키워드가 많아 검색 결과가 너무 제한되게

〈표 9〉 탐색 유형별 이용 사례(전체 이용자 수 89명; 전체 이용횟수 796)

	인터넷검색엔진	디지털도서관 탐색	도서관 서가 브라우징	개인 소장자료 브라우징	특정 웹사이트 탐색	웹 신문 탐색	인터넷 백과사전/사전 탐색	전문가 상담
해당 유형 이용자수	87	52	26	13	21	29	26	1
총 이용 횟수	378	169	65	28	63	54	38	1

〈표 10〉 정보탐색 전략 변경 사유

	키워드추가	키워드 제거	키워드 변경	탐색과정 중 키워드 발견	정보원 변경	키워드 연산 변경	전략변경 없었음
응답자수	20	18	36	11	9	5	12

나와 키워드를 오히려 제거한 사례도 키워드를 추가한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키워드를 확장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보탐색 전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응답한 수강생 비율은 79%로 대부분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였는데 <표 11>에서와 같이 탐색 전략을 미리 준비한 것이 탐색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리 키워드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탐색 중 생각해 두었던 정보들을 누락하지 않고 찾을 수 있었고 주제 탐색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검색을 할 수 있어 정보탐색 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탐색 중 키워드를 변

경하거나 추가할 때 기존 개념들과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어디서 찾을 것인지 생각해본 것이 연구과제를 위해 정보를 찾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해주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3. 5 정보접근 과정 평가

과제를 통해 정보접근 과정을 학습한 수강생들에게 학습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각 과정을 수행하는 중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영역이 무엇인지 설문을 하였다. 설문 결과 <그림 2>와 <표 12>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다

<표 11> 정보탐색 전략 필요성

필요 사항	응답내용	응답자수
시간단축	- 미리 정보원 유형과 탐색 키워드를 생각해 본 것이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시켰다. -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다른 정보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 사전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떠오르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보다 검색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다.	47
정보 누락 방지	- 검색 도중에 잊어버렸던 처음 원했던 것을 빠지지 않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지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17
일관성 유지	- 내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알아 도움이 된다. - 키워드를 미리 작성하여 일관성 있게 검색을 할 수 있었다.	11
정보요구 정리	- 막연했던 연구 과제 해결 과정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정보 전체와 궁극적 주제의 흐름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탐색어 관리	- 검색 중 떠오른 것을 미리 정리해놓은 키워드와 비교하며 추가할 수 있었다. - 키워드를 바꿔서 같은 것을 다시 찾는 오류가 적었다.	9

<표 12> 정보 접근 과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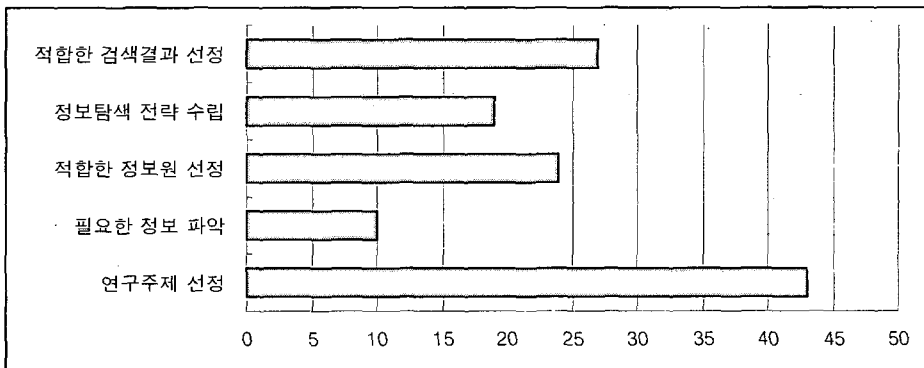
도움이 되었는가?	브레인 스토밍	컨셉 매핑	필요정보나열 및 정보원 선정	정보탐색 전략
매우 그렇다	27	24	29	22
그렇다	51	48	44	49
보통이었다	15	20	20	18
그렇지 않았다	1	2	1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보접근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 영역에서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적합한 검색결과를 선정하는 것, 적합한 정보원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적합한 검색결과 선정 및 정보원 선정은 모두 평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응답자들이 정보접근 과정에서 평가 부분에서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으로 정보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탐색 전략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탐색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영역은 필요한 정보 파악으로 이는 정보원 선정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높은 친숙도와 신뢰도가 미친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실제 문제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즉, 응답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 적절한 정보활용 수준에 도달하는지 평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결론

이 연구는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교과 내용 중 정보 접근력 함양을 위한 과제에 대한 수강생들의 양태를 분석하고, 이 과정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수업 과정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과제와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응답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요구 인지 및 표현 단계에서 브레인 스토밍, 컨셉 매핑, 연구문제 생성 과제를 수행하였다. 브레인 스토밍은 막연한 정보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되었고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제한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개념과 주제의 구체화가 컨셉 매핑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복합 주제를 나타내는 개념이나 중의적 개념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정보요구는 연구문제를 생성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에 대한 설문에서 개념



〈그림 2〉 정보접근 과정 단계별 필요성 평가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조사, 배경지식 습득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정보활용교육 교과내용에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탐색하기 이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탐색하는 과정을 선행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즉,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정보탐색과정에서는 인지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 것처럼 정보활용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요구가 있으나 주제 지식이 충분치 않고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주요 개념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탐색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정보요구를 규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정보탐색 과정과 필요한 정보가 인지된 후 수행되는 정보탐색 과정에 대한 요구조건과 탐색행태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탐색의 적용 단계별 특성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화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탐색 전략 수립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모두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종합적인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디지털 도서관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섞여서 나타나 정보원을 유형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는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인터넷 정보만을 사용하는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인터넷만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어 추후 인터넷 정보

원과 인터넷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셋째, 정보탐색 전략과정에서 선정한 키워드로 실제 탐색을 수행해 보고 그 과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탐색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심각한 인터넷 의존도를 증명하였다. 탐색을 수행하던 중 탐색 전략을 변경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74%로 나왔고 탐색 전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대부분 탐색 전략을 정보활용의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정보접근과정에 대한 학습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각 과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적합한 검색결과와 정보원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평가와 관련된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반면, 전통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탐색 전략 수립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탐색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을 드러냈다.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단계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원에 대해 높은 친숙도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실제 정보이용의 효과성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는지는 분석되지 않아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은 깊은 의미를 지닌 연구문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나 창

조적인 탐험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학습활동에서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탐구적인 학습이 기본이 되며,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활동과 연구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과연 학생들이 오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해 과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학생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 학생들은 인터넷 중심의 정보탐색능력보다 정보요구를 표현하는 것과 적합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하

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보탐색기술 위주로 수행되는 정보활용 교과 내용을 개편하고 효율적인 정보활용교육을 위해서는 정보활용의 전 과정을 수용하면서 정보 요구 표현과 평가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온라인 튜토리얼을 통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교육,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이 성공적인 교육과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학생들에게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학습 동기 부여, 정보활용능력의 평가방법과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 등이 추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8-320.
- 박명규. 2004.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교과 교육과정 모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창수, 김신영. 2003.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20(1): 231-250.
- 진혜영, 황인영. 2003. "국내 대학의 정보이용능력 교양교육의 표준 지침 수용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84-294.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05.8.12]. <<http://www.ala.org/acrl/ilcomstan.html>>.
- Breivik, P. S. 1998. Student Learning in the Information Age. Phoenix: Oryx Press.
- Brown, Cecelia, Teri J. Murphy, and Mark Nanny. 2003. "Turning Techno-Savvy into Info-Savvy: Authentically Inter-

- grating Information Literacy into the College Curriculu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9(6): 386-398.
- Dewald, N. 1999. "Transporting Good Library Instruction Practices into the Web Environment: An Analysis of Online Tutorial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5(1): 26-31.
- Frantz, P. 2002. "A Scenario-based Approach to Credit Course Instruction." *Reference Services Review*, 30(1): 37-42.
- Hinchliffe, L. J., & B. S. Woodard. 2001. "Instruction." In: R. E. Bopp and L. C. Smith (Eds.),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3rd ed., 177-209.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 Jacobson, T. E., & B. L. Mark. 2000. "Separating Wheat from Chaff: Helping First-year Students Become Information Savvy."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9(4): 256-278.
- Manuel, Kate. 2002. "Teaching Information Literacy to Generation 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26(Spring/Summer): 195-217.
- Orr, Debbie, Margaret Appleton, and Margie Wallin. 2001. "Information Literacy and Flexible Delivery: Creating a Conceptual Framework and Model."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7(6): 457-463.
- Seamans, Nancy H. 2002. "Student Perceptions of Information Literacy: Insights for Librarians." *Reference Services Review*, 30: 112-123.
- Shapiro, Jeremy J. and Shelly K. Hughes. 1996. "Information Literacy as a Liberal Art." *Educom Review*, 31(2) [cited 2005.8.12]
 <<http://www.educause.edu/pub/er/review/reviewarticles/31231.html>>
- Stoffle, C. J. 1998. "Literacy 101 for the digital age." *American Libraries*, 29(11): 46-48.
- Wilson, L. A. 2001. "Information literacy: Fluency across and beyond the university." In: B. I. Dewey (Ed.), *Library User Education: Powerful Learning, Powerful Partnerships*, Lanham, MA: Scarecrow Press.